

SPECIAL REPORT **중·일·SUNDAY·興時齋** 공동기획 세계 싱크탱크가 전망한 2017년 국제정세

戰略

미·중·일·유럽

그들의 속내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른바 ‘블랙스완(검은 백조)’ 현상은 2017년에도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통과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은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가 블랙스완의 여파를 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이 구체화되고 1월 20일(현지시간)에는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성이 지배하게 될 올해의 국제 정세를 유수의 싱크탱크들이 전망해봤다.

미국 안보위협 목록 첫 번째는 ‘미국 내 상황’

흔들리는 미국 우위, 패권경쟁 권력 공백 커질 것

나지원 동아시아연구원(EAI) 연구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7년 전망 보고서’ 첫 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맞이하게 될 국가 안보 과제의 목록을 열거했다. 흥미롭게도 서두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대한 염려로 시작한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대외정책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서’(sentiment)라는 것이다. 통치는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 운영의 기술과 현안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안보위협 목록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 내 상황이 거론된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분야도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미국 내 사정을 지켜보며 동맹국들은 의구심을 품고 경쟁국들은 과감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국력이 물리적 역량과 정신적 의지의 합수라고 한다면 군사적·경제적 역량도 정체 상태에 있는 데다 국론마저 분열된 국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우위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모호한 태도와 점차 공세적으로 변해가는 경쟁국들의 도전 역시 미국 안보의 주요 과제다. 경제 기반의 약화는 국방 예산 축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동맹에 대한 안보 제공 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미국과 동맹국 간의 상호 불신과 불안감 증폭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 재협상 및 동맹 전반에 대한 재검토 공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가 정책을 압도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완전히 평등하게 호혜적인 동맹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냉전기보다 위협의 형태가 더 복잡하고 모호해진 이 시대

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음을 지적한다. 개별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군사 역량과 더불어 동맹국들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군사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해 안전보장 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 9조 재해석을 통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외 전력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한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토·러시아 무력충돌, 본토 테러

북한 핵무기 개발로 초래될 위기

1급 위협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

현재 국제 정세가 지속되는 동안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일본의 군비 강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릴 공산이 크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군비 증강은 상수로 고려하되 역사적 선례와 전통적인 세력균형 모델을 명분으로 삼아 최대한 보상을 취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SIS 보고서에서 바라보는 세계 패권 경쟁 구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 공백(power vacuum)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들의 도전은 거세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도전자들의 영향력은 아직 지역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즉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여놓을 역량은 있지만 대안적 질서를 세울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주공산, 군웅할거의 양상이 전개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한다.

각 지역의 경쟁 세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단합해 미국에 대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전망은 미국에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는 균형과 편승, 혹은 또 다른 노선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암중모색의 시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북핵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가중된다면 한국 외교정책은 자칫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험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또 다른 유명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외교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산하 예방조치센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가 매년 발간하는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7년 보고서 표지에 북한군 열병식 사진이 실린 것은 일견 의미심장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안보 위협을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변수로 평가해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의 무력충돌, 미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 공격과 더불어 북한 핵무기 개발로 초래될 위기사태가 1급 위협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다.

2017년 세계 정세의 향방은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앞으로 최소 10년간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적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트럼프 등장 후 외교 ‘블랙스완’ 경계

미국과 직접 경쟁보다는 핵심이익 관리.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2016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 획득,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에 동시에 직면했다. 중국은 2017년도 “온 세상이 출렁이고 비·구름이 요동치고, 전 세계가 진동하고 폭풍우가 맹렬한(四海翻騰雲水怒, 五洲震蕩風雷激)”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블랙스완(잘 일어나지 않는 일)’ 현상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질서의 새판 짜기나 기존 패러다임 대체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른바 핵심 이익의 관철과 수호를 목적으로 세계질서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핵심 이익과 중요 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는 2017년 중국이 견지해야 하는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전략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할 것,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것, 적시에 오류를 바로잡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질서 차원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이른바 ‘반화(反華)’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즉 세계질서는 관



중국의 미사일 탑재 구축함인 광저우함이 지난해 7월

망하고 지역질서는 간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라 이를 타개할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고 구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구조를 완전하게 혁신할 공급 측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서비스, 위안화 가치 유지를 위한 신통경제 발전과 통화가치 안정, 산업구조 개편 등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 안보 분야 독립성 확보 과제

러시아와 관계 악화되는데 군사 경쟁력

고주현 연세대-EU장모네 센터 연구교수

2017년 유럽은 브렉시트 협상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안보·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유럽의회는 2017년 유럽연합(EU)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공동 안보와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결속의 문제를 꼽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내 경쟁력 격차와 취업, 시민참여와 민주적 책임, 기후 변화, 불평등 심화, 생산성 침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 변화, 시리아 내전에 따른 대외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안

정, 지속되는 유로존 경제 침체로 인한 병폐 등을 EU가 당면한 도전들로 보았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면 EU는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국면에서 내부 균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유럽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우는 핵심적인 긴장 요소다. 브렉시트로 인해 EU는 안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군사력을 갖춘 회원국을 잃게 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지금까지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 왔던 유럽 국가들은 공동방위금 부담을 늘려서라도 안보 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두 대(B-52의 오른쪽)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두 대(B-52의 왼쪽)의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공군]